

제191차 위해정보평가위원회 회의결과

1. 회의 개요

- 1) 회의일자 : 2017. 12. 15.(금)
- 2) 장소 : GS타워 25층 회의실
- 3) 참석 위원 : 재적위원 29명 중 18명 서면결의
- 4) 상정안건
 - 보고안건
제1호 2017년 위해정보 운영 및 활용 실적
 - 심의안건
제1호 피젯스피너 안전실태조사
- 5) 소관부서 : 위해정보국, 안전감시국

2. 회의 결과

■ 보고안건 제1호 : 2017년 위해정보 운영 및 활용 실적

○ 안건 주요 내용

- 위해정보 접수 실적

- (수집채널별 현황) 2017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을 통해 접수된 위해정보는 총 70,670건으로 전년 66,313건 대비 6.6% 증가함.
- (품목별 현황) ‘가구 및 가구설비’ 관련 위해정보가 10,694건(15.1%)으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‘가공식품’ 10,262건(14.5%), ‘건축/인테리어 자재 및 작업공구’ 9,323건(13.2%) 등의 순이었음.
- (연령별 현황) ‘10세 미만’이 23,274건(32.9%)으로 가장 많고, 다음으로 ‘30대’ 9,595건(13.6%), ‘40대’ 8,037건(11.4%), ‘60세 이상’ 7,239건(10.2%) 등의 순이었음.

- 위해정보 활용 실적

- 위해정보를 활용하여 리콜권고 186건, 대정부 건의 39건, 소비자안전 주의보 10회, 안전실태조사 22개 과제, 외부기관 제공 150회 등을 실시함.

- 위해정보평가위원회 및 위해정보평가실무위원회 운영

- 8회 개최, 12건 심의(보고안건 2건 · 심의안건 10건) / 15회 개최

○ 논의 결과 : 원안 접수

■ 심의안건 제1호 : 피젯스피너 안전실태조사

○ 안전 주요 내용

- (조사 배경) 피젯스피너 사용 중 얼굴에 상처를 입거나 피부 발진이 발생하는 등의 위해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에 접수되었으며, 해외에서도 피젯스피너 사용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.
 - 이에 피젯스피너 위해성 평가를 통해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함으로써 소비자,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.
- (조사 대상) 어린이 완구인 놀이용 피젯스피너 25종, 충전지로 작동하는 블루투스 스피커 기능이 포함된 피젯스피너 10종
- 조사 결과
 - (국내 위해사례) 위해감시시스템(CISS)에 접수된 위험·위해사례는 2017. 5. 이후 총 11건임. 이 중 4건(36.4%)이 신체 위해가 발생한 사례이며, 모두 어린이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.
 - (해외 위해사례) 신체 상해 삼킴 사고, 화재 등 다양한 위해사례가 확인되었으며, 대부분 13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함.
 - (표시 실태) 놀이용 피젯스피너 25종 중 10종은 사용 가능한 연령 표시 없이 불법 판매됨.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 조사대상 10종 모두 배터리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됨.
 - (안전성 시험) 놀이용 피젯스피너 25종 중 8종이 날카로운 끝부분 가장자리 등 물리적 안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.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는 10종 중 6종에서 충전 과정에서 배터리 부풀음 현상이 발생함.
- 조치 계획
 - (사업자 시정조치)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놀이용 피젯스피너 3종, 한국제품안전협회에 행정조치 협조 요청
 - (일괄 시정조치) 안전확인 미신고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에 대하여, 오픈마켓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한 수입·유통 일괄 차단 및 관세청을 통한 수입 차단
 - (불법 제품 지도·단속 건의) 안전확인 미신고 블루투스 스피커용 피젯스피너의 안전성 조사 및 불법·불량제품 모니터링에 반영 요청(국가기술표준원)

○ 논의 결과 : 원안 의결. 끝.